





사 설

4·3연구기관 설립을 다시 촉구함

벚꽃이 화사한 가운데 어김없이 4·3을 맞는다. 어 느덧 65주년이 되었다. 4월 3일이 국가추념일로 지 정되지도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 지도 않았지만, 4·3의 열기는 변함없이 뜨겁다. 위령 제, 토론회, 심포지엄,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행사 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으레 그래왔듯이, 우리 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가 백두관에 합동분향소 설 치와 더불어 유적지 순례 행사를 가졌으며, 학과 학 생회 단위로 위령제 참석, 다큐멘터리 상영, 전시회· 공연 관람 등의 행사가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몇몇 행사가 전부다. 우리대 학교에서 주관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4·3 행사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 4·3을 연구하는 교수들도 있고 관련 강좌가 사이비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변변한 학술행사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지역거점대학’을 내세우 는 국립대학인 우리대학교 교정에서는 아카데미한 4·3 행사를 눈을 찢고 찾으려도 찾을 수 없다. 제주 는 물론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 지고 있는 4·3 문제를 지역거점대학이 외면하고 있 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4·3 문제를 전담하여 연구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연구소·탐라문화연구소 등

의 관련 연구소와 사학과·사화학과·정치외교학과 등 관련 학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연구소와 학과에 서의 4·3 문제는 부분적 관심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담할 연구기관이 대학에 절대적으로 필 요한 것이다.

제주대신문에서는 지난 11월 28일자 신문의 사설 을 통해 ‘대학에 4·3연구 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안 한 바 있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이미 1996년에 ‘5·18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 논문집·연구총서·자료집·교재 발간, 기념관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 있음 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전남대가 광주민주화운 동 16년 만에 5·18연구소를 출범시켰음을 감안하면, 우리대학교가 제주4·3사건 65주년이 되었어도 수수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지금부터라도 4·3 연구기관 설립 작업을 시작하 자. ‘4·3연구센터’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서 돌려 구체화하자. 이 기관을 중심으로 4·3 관련 전임 교수와 인력을 채용하고, 책임 있는 조사·연구·교육 을 진행케 하자. 그래야 ‘지역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지역거점대학’이 구호만이 아닌 현실로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새 도서관 건립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 자연환경 의 보전과 생활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삶의 축적에 의한 결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인프라 구축, 즉 문화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 문화기반시설이란 문화의 기능 또는 행위 패턴을 담을 수 있는 시각적 형태의 조형물로 구성된 일종의 영역(area)을 지칭하는 말이며 도시 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은 크게 공공 도서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기타문화 시설(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등)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은 도시민들만의 밀접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학의 중심적 기능이 교 육과 연구이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의 대학은 지역사 회에 밀착되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활 발한 교류를 통해 생산적인 연구와 교육 서비스제공 과 문화적 가치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도서관은 2011년 현재 106만 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대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온 대표적인 시설임에는 틀림없으 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 분이 그러하듯 대학 도서관은 시험기간에 집중적으 로 사용하거나 평소에는 각종 시험준비를 위한 공간 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도서관의 공간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단순 히 책을 열람하는 넓은 공간과 서고, 관리공간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의 도 서관은 다양한 기능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공간의 형태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사 용자인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로서의 학생들 스스로가 도 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려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새로운 대학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구체 화되고 있다고 한다. 건축부지의 위치도 결정되면서 건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자 대학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기쁘고 기대 되는 소식들이다.

그러나 몇 가지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며 대 학당국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현대사회의 대학도서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능 과 공간이 적절한지, 학생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성이 고려되었는지, 대학의 문화기반시설이자 대학의 상징적 아이콘으로서 도서관의 디자인을 어 떻게 할것인지 미래를 내다보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 고 있는지 대학당국에서는 재검찰할 필요가 있다.

해외실무로 취업경쟁력 쑥쑥!... 해외인턴십 발대식

캐나다서 20주간 어학연수·인턴십 현장체험

대학생 11명 국제 경쟁력 갖춘 인재로 육성

제주대 학생들이 캐나다로 해외취 업인턴십을 떠난다.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인턴십 발대 식이 참가 학생 11명과 임재운 취업 전략본부장, 오재운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회의실 에서 열렸다.

이들은 지난달 초 도내 각 대학의 학생 가운데 영어 구사능력과 학과성 적을 심사해 선발된 학생들로 꾸려졌 다.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3주간 하 루 6시간씩 집중적인 어학연수 등의 교육을 수료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출국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10주간의 어학연수와 현 지 기업체에서 10주간의 인턴십 과 정, 1주간의 개인별 문화체험을 거치 고 8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주관하는 이번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 재운)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8회째 추진되고 있다. 인턴십은 개발공사의 1억5000만원의 지원금과 각 대학과 참여 학생 개인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발공사는 발대식 후 연수생들을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인턴십 발대식이 참가 대학생 11명과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 오 재운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 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상으로 ‘제주삼다수’ 우수성을 알 리기 위한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했

다. 앞으로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서 ‘제주삼다수’ 홍보활동도 벌인다.

창업지원단, 창업률 100%·4억1992만원 매출 성과

11개 팀을 대상으로 사업

2013년 지원대상자 모집

창업지원단(단장 조경호)은 지난 해 11개 팀을 대상으로 예비기술 창 업자 육성사업을 진행한 결과 창업률 100%의 실적을 올렸다.

예비기술 창업자들은 창업률 100 % 외에도 매출실적 4억1992만9000 원, 지식재산권 18건 확보, 신규 고용 18명의 성과를 보였다.

조경호 단장은 “올해에는 사업 프 로그램을 고도화 해 예비기술 창업자 가 지속 가능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다음은 2012년 예비기술 창업자

현황이다. △성식 C&H(창업자 김중 언)=과실 숙성시스템 개발 △티는사 랑(＼ 이건우)=엠프(수동식 공기호 흡기)의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장비 개발 △(주)가이(＼ 오동훈)=크라 우드 소성을 활용한 제주형 지식기반 비즈니스 센터 설립 △(주)에프엘소 프트(＼ 김홍태)=사이버 영농 시스 템 △고사리술(＼ 강은영)=고사리 가공처리 폐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가온(＼ 이병휘)=감귤 오일을 첨가한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 정제 △4e(＼ 김고범)=인쇄전자 기 반의 3차원 실금 프린팅 헤드 개발 △마이크로스튜디오(＼ 김영천)=u- 러닝용 실시간 녹화장비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참살이탐나도다영농 조합법인(＼ 김미자)=제주지역 유

기능 농산물을 활용한 디자인 캔디 개발 △제주마유(＼ 조용현)=고순 도 정제마유를 이용한 고기능성 피부 질환 개선용 마유화장품 개발 △양양 하이테크(＼ 서대림)=고효율 산소 용해장치 개발.

한편 창업지원단은 올해 중소기업 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번 창업사업화 지원대상자 신청 은 제주지역 창업자를 대상으로 17일 오후 3시까지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 스템 (http://startbiz.changupnet.go.kr/jiwon)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문의=창업지원단 (전화 754-2066)

여성공학도 활동단

오는 5일 제2기 발대식 열려

WISET 제주지역센터(센터장 도양희)는 오는 5일 오후 4시 대학 내 글로벌하우스에서 ‘여성공학도 활동단 New WAVES girls’의 제2기 발대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 운영위원인 이용규(건축학전공) 교수의 ‘꿈꾸 는 여성엔지니어를 위하여’를 주제 로 한 ‘항기나눔’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그 외에도 ‘New WAVES girls 1기’ 우수 활동단 단비문의 박은실 학생(전자공학과)의 ‘2012년, New WAVES girls로 날개 단 우리들의 꿈’을 주제로 한 ‘항기나눔’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금연클리닉 참가자 모집

건강증진센터에서 19일까지

건강증진센터(소장 김문두) 가 오는 19일까지 금연클리닉 참가자 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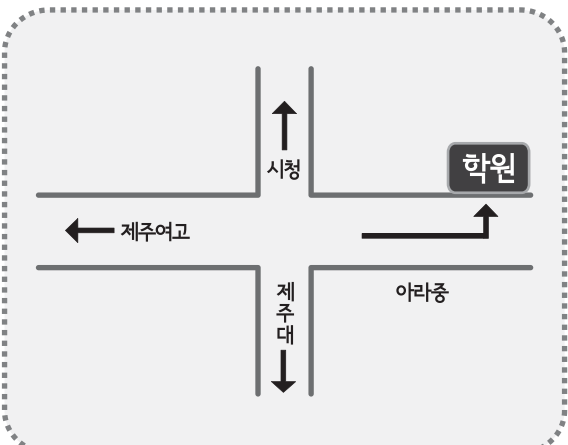
금연클리닉은 제주대 학생과 교 직원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금연클리닉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문의=전화 754-2059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우리들에게 현재 필요한 경쟁력은 바로 '디자인' 입니다.

TRU\_Design

- >>> 편집디자인 & 인쇄물 (홍보리플렛, 카달로그, 브로슈어, 포스터, 도서출판)
- >>> 광고물 (현수막제작, 각종 배너 및 POP제작)
- >>> 패키지물 (제품박스, 소량백, 제품라벨)
- >>> 판촉물 (손수건, 티셔츠, 상패, 트로피, 단체복)
- >>> 각종 학습세미나 관련 홍보물 (별표자료집, 초대장, 결과보고서 및 홍보부스 렌탈)

상담문의

Tel. 064. 756. 2358 Fax. 064. 753. 5238  
e-mail. tru7994@hanmail.net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지원 “창업 아이템” 모집

-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도민 중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 ▷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용

- ▷ 최대 5천만원 한도(총사업비의 70%이내)내에서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준비 지원

구 분	제조업 분야	지식서비스 분야
정부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최대 35백만원
창업자 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20% 현물 부담	현물 부담(현물부담(주관기관 부담가능))

2. 신청 자격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대표자  
※ 기업의 대표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 ▷ 신청 기간 : 2013년 3월 27일 ~ 4월 17일
- ▷ 신청 방법 : 창업넷(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tartbiz.changupnet.go.kr
- ▷ 지원 제외 아이템 : 숙박, 요식, 사행성 관련 아이템 등

3. 문의 사항

-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http://changup.jejuu.ac.kr)  
Tel. 064-754-2066 Fax. 064-755-2131 담당자 김상현

- ※ 선정된 창업자는 향후 창업교육 50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 창업보육센터 입주 희망 시 입주 관리 비용을 지원함.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3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96호(2013년 7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 남학생 전용휴식공간은 왜 없나



학생회관 2층에 마련된 여학생 휴게실.

## “남학생 여차별 우려” 타 대학 전용 휴게실 설치

“우리학교에 왜 남학생 휴게실은 없는거죠? 남학생도 학교에서 잠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

면 좋겠어요” 한 남학생은 학교에 남학생들이 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멘소리를 냈다. 제주대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실은 단 한곳. 바로 여학생 휴게실뿐이다.

일부 남학생들은 전용휴게실이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정말로 양성평등을 이야기한다면 남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총여학생회를 비롯해 학생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른 대학처럼 하루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총여학생회장은 “남학생은 학교방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여학생은 학과 방 등에서 쉬기 힘들어 예전부터 총여학생회에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학생 휴게실 설치의 목소리는 제주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커지고 있다. 여학생 휴게실이 많은 가운데 남학생들도 남학생 휴게실을 지어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혹자들은 이 점을 들어 대학가에

남성인권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인권신장, 복지증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여학생회에서 남학생의 복지도 배려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에 경기대에는 독특한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보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여성인 이다예씨가 여학생 휴게실에 밀려 마련되지 않았던 남학생들만의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것이다. 공과대학의 특성상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무려 9대1에 육박하지만 정작 남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여학생인 이씨가 회장으로 당선되는데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또 그 외에도 경희대, 인천대 등에서도 이러한 지적에 따라 남학생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봄꽃소식은 언제나 아라캠퍼스를 흥분시킨다. 화사한 자태를 뽐내는 왕벚꽃들이 일찍 꽃망울을 터트린 가운데 1일 야외음악당 잔디밭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앉아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 ‘FTA와 제주경제’ 강좌 마련

### 무역학과 정규강좌로

### 김상오 시장 등 특강 나서

무역학과(학과장 이용완)가 지난 달 28일 경상대학 2호관 0152강의실에서 김상오 제주시장을 초청, ‘FTA시대의 제주경제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김상오 시장은 특강에서 제주경제의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와 학생들의 졸업 이후 진출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 강좌는 ‘FTA와 제주경제’라는 정규과목에 개설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외수출을 이끌어갈 무역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기본 교육과 이해, 실제 적용사례 등을 교육해 FTA 예비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한국 FTA 산업협회 이창우 회장의 ‘국제통상환경과 FTA 시장특성’, 21일에는 인하대 정석물류연구교수 조정란 박사의 ‘FTA 협정의 분야별 주요내용’에 대한 특강이 열리기도 했다.

## 주강현 석좌교수 강연 오후 2시 아라뮤즈홀

주강현 (탐라문화연구소) 석좌교수가 오는 3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열리는 제주대 문화광장에서 ‘해양문화와 21세기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제주대문화광장에서는 제주도를 드넓은 바다로 진출한 역동적인 섬으로 바라보는 ‘해양중심적사관’을 바탕으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기초교육원(전화 754-2035)



## 교육봉사 모임 미담장학회 입학식 개최

### 제주대 학생이 멘토로 나서 평등교육사회 실현 목표로

교육봉사 모임인 제주대 미담장학회(회장 김민주 식품영양학과 2)가 지난달 30일 학생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미담장학회 출범식을 겸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중·고등학생(멘티), 대학생(멘토), 학부모 등 60여명과 김인호 경북대 미담장학회 회장이 참석해 제주대 미담장학회의 본격적인 활동 돌입을 축하했다. 제주대 미담장학회는 지역 중·고교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개강은 오는 6일이며 13주 동안 매주 주말에 4시간씩 수업을 하게 된다. 한편 미담장학회는 평등교육사회 실현을 목표로 무료 교육을 실천하는 교과부 인증 국가공인 교육기부 단체



제주대 미담장학회(회장 김민주 식품영양학과 2)가 지난달 30일 학생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 청소년 환경동아리 ‘푸른나래’ 상금 기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감상규)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푸른나래’가 지난달 19일 (사)미래지식성장포럼이 주최한 ‘제4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동아리지원 및 수기공모전’에서 수상한 단체우수상 상금 30만원 전액을 ‘행복나눔지역아동센

터’에 기부했다. 환경동아리 ‘푸른나래’는 2010년 결성돼 녹색생활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활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실천을 표방하는 청소년 환경동아리다. 지난해부터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찾아가

는 환경교실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팀장 김예지(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 2) 학생은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정두언·김성곤 의원)이 주최한 ‘201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서 △저탄소 블로그 운영 △장애청소년 참여·실천 노력 △제주지역의 생태보전 활동 등으로 학생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초등 체육영재 모집 체육영재센터서 10일까지

체육영재센터(센터장 양명환)가 오는 10일까지 2013년도 체육영재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현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도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4학년 학생이다. 모집 종목 및 인원은 육상·체조·수영 분야 11명이다. 1,2차 체력 및 종목별 운동능력 측정과 학부모 면접을 통해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체육영재(초등학생)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체육영재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영재발굴시스템(KOSTASS)를 활용해 육상·체조·수영종목의 학생을 선발, 육성하고 있다. 체육영재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 3년동안 33명의 체육영재가 배출했다. 2012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육상종목 제주도 대표 및 체육중학교에 진학한 영재를 배출하기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영재센터(전화 754-2270, 3580)와 누리집(http://jnnest.or.kr)으로 하면 된다.

## 사람들

### 송재호 교수

### 미래발전연구원에 선출

송재호(관광개발학과) 교수가 최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선임됐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인 2008년 9월 출범시킨 민간 정책연구원이다. 그 동안 정책도서출판, 정책세미나 등으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김재규 행정학과 동문

### ‘제공회’ 신임회장 선출

김재규(56·국민권익위원회 상

임위원) 동문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제주출신 공무원 모임인 제공회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김 회장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해 법제행정과장과 행정법제국 법제관,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사회문화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고자명 수의학과 동문

### 중소기업센터 본부장 선출

고자명(67·전 제주축협 전무이사) 동문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부이사장)에 선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달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본부장에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고자명씨를 선출했다. 고자명 신임 본부장은 수의학과와 대학원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했다. 고자명 중소기업센터 본부장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연구소를 시작으로 축산업협동조합 전무,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고자명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016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 제주대신문 61기 수습기자 모집

“청춘을 가장 멋있게 불사르는 방법”

- 입사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고, 보도사진 등)
- 실제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편집 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언론사 취업 적극 알선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라오스, 몽골 등)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학부 신입생(13학년)  
원서마감 : 4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 제주대신문 편집국 방문 또는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공지사항 참조  
기타서류 : 입사지원서와 함께 자기소개서 1부 제출  
장소 :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편집국  
문의 : 제주대신문(064-754-2277~9)

청춘 20대, 꿈을 쫓아





# 4·3문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과 ‘특별법 개정’부터

학술기고 4·3문제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



고창훈  
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3월 22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20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4·3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의 기초 강연을 하였다. 올해가 제주 4·3 대량학살의 비극을 맞은 지 65주년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가 민주통합당과 똑같이 완전한 4·3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그 결과 제주도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고들 말한다. 도민들 다수가 이명박 정부가 4·3 외면과 억압의 5년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4·3 해결과 실천의 5년이 되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완전한 4·3의 해결의 국내적 차원에서 실현이 필요하다.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공약부터 이행함으로써 새 정부가 완전한 4·3 해결의 시작을 해내야 한다고 본다. 지난 3개월 4·3 유가족 신고에 2만7천명 이상의 희생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으로 추념해야 할 역사적 의미를 내포한 사건임을 상기시킨다. 다음은 4·3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배상의 청사진과 대상 규모 기준을 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에 명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제주대학교는 4·3의 국제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4·3진상규명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대는 5·18 연구소가 있어 5·18 민주항쟁에 기여하였지만, 제주대에는 4·3관련 연구소가 없어 제주4·3의 진상규명이나 세계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도민들이 아쉬워 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 평화연구원 4·3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가 하면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가 4·3평화재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주4·3사건진상 정부보고서(2003)의 영문번역 업무를 맡아 실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 제주대와 하와이 로스쿨 제주 4·3 콜로키움에서 제주 4·3 사건을 “미군정 평화 점령시대의 제주도민 대량학살 The Mass Killing of Korea's Jeju Islanders During US Peacetime Occupation”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가치에 입각하여 냉전시대 제주에서 발생했던 미국정부에 의한 인권탄압의 사례인 제주4·3의 희생자들에 대해 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

했다.

2012년 12월 30일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의 국제저널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2권 1호)에 하와이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4·3 관련 영문 논문 등 3편을 게재함으로써 제주4·3 대량학살의 비극을 겪으면서 희생된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Eric Yamamoto 교수는 “The United States' Role in the Korea Jeju April Third Tragedy and Its Responsibility for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라는 논문에서 제주4·3 사건이 미국의 평화시대 점령기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이므로 미국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입장을 제시 미국정부에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 이는 존 매릴 교수가 말해왔던 제주4·3을 좌익에 의한 반란이라는 입장을 정정하는 것이었다.

하와이대 백태웅 교수는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 Jeju 4·3 Case”에서는 4·3 사건은 광범한 제주 사람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므로 마땅히 한국정부도 미국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 홋카이도 법전원의 구니히코 요시다 교수는 제주4·3사건의 학살을 일제시대 남경 학살이나, 위안부 사건 등 아시아 인권탄압 사례와 비교하면서 4·3 사건에서의 잔인한 인권탄압의 측면을 명백히 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그의 논문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 Some Comparison of Jeju April 3rd Tragedy with Other Related Asian Reparations Cases”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노력들을 바탕으로 제주대와 하와이대 법전원,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교 법전원이 공동으로 미국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세계평화의 섬 실천 포럼 World Peace Island Forum WPIT” 같은 회의를 주도해 나간다면 그 가능성을 현실화 시켜 나갈 수도 있다.

도의회 4·3특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안된 4·3평화교육학과 설치의 “평화섬대학원 Peace Island School”의 설립에 제주대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미군정점령 평화시대의 한국 제주 양민대학살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The Mass Killing of Korea Jeju Islanders During U.S. Peacetime Occupation>는 사회적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제주대가 2013.7.22-7.31까지 서귀포 보목연구소의



제주4·3유족회는 지난달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65주년 4·3위령제 참석을 요청했다.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에서 4·3 평화교육과 섬 평화교류 Jeju 4·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s of Peace을 개설하고 6개의 현장학습을 실행함으로써 4·3 평화교육학과 같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기대한다.

필자는 4·3평화교육학과 설치가 가능한 “평화섬 대학원 Peace Island School” (도립)을 설립하여 제주4·3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화문제를 특성화시킨 평화섬 대학원 Peace Island School (PIS)으로서 지역균형 발전도 추구하는 차원이라면 서귀포시가 나서서 국제적인 수준의 도립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 (Jeju Peace Island Plan 2013-2016 : 2013.2.22)을 구체화 할 때이다.

그 규모 총 정원 80명 (연 40명 모집과 20명의 국제교환학생 등 60명 단위로 운영)으로 하되 4개의 학과로 해양문화학과 Marine Culture, 4·3 평화교육과 섬 평화문화학과 April 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 of Peace, UNESCO 국제보호구역, 녹색성장과 트레벨리즘이며, 명예총장 포함 40명의 국내외 교수진으로 2014년 7월 출범시키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도민적 공감대가 조성된다면, 광역권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에 공모하여 지원을 요청해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신청에 맞추어 자체발전기금과 국제기금 투자금 및 국가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5년 500억 규모를 투자하여 서귀포시에 설립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제주4·3사건 독립영화 ‘지슬’과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등재 4·3사건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길을 열다.

오랜 감독의 독립영화 ‘지슬’은 미군정시대의 대량학살의 비극으로부터 인권존중과 평화추구의 희망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아픔으로부터의 4·3의 완전한 공감”을 일으킨 놀라운 감동이라고 평가하였다. ‘지슬’의 문화적 성공은 “제주도 사람의 제주사리를 위한 제주4·3 이야기”로 세계인과 소통한 결과 세계인에

게 4·3의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4·3 특별법에 4·3문화예술의 4·3의 문화적 치유 기금으로 ‘4·3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를 명백히 하여 4·3 문화예술가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4·3진상규명과정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기여와 참여의 결과이도 하지만 더욱 노력하여 4·3의 세계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미술, 마당극, 사진, 영상 다큐멘터리, 노래 등의 분야에서의 그간의 노력의 성과를 예술적 감동으로 일으키는 문화적 투자는 국가추념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제주 4·3이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5·18이나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작은 섬 Robben Island를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례와의 비교연구와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기록문화유산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검토도 시작되었다. 제주4·3에 관한 원본 기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을 검토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투옥 장소였던 Robben 아일랜드의 감옥소가 복원되어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는데 이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조정공장 학살터나 다랑쉬굴의 현장 복원, 4·28 화평회담의 현장 복원 등과 백조일손지지, 북촌리 학살현장 등의 유적지를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문제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4·3의 경우 2차 대전 직후의 냉전시대의 아시아 민중에 대한 인권탄압사례로서의 세계사적 의미가 있고 이를 극복하는 진상규명 과정 역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총체적으로 균형있게 반영하여 제주4·3의 세계사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차원의 원칙이 세워지고 그 틀 속에서 4·3평화교육과 평화문화의 세계화 노력도 포함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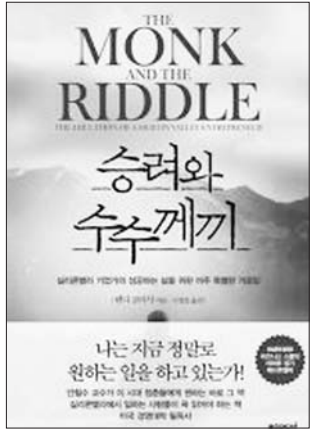
권하고 싶은 책

## 최악의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삶

‘계란을 1미터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깨뜨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라고 미안바 승려가 묻는 수수께끼에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할 것인가요? 인생은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라는 수수께끼에 대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실리곤벨리에서의 벤처창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각자 찾아보도록 통찰력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레니’라는 젊은이가 대표적인 벤처투자자의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실리곤벨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랜디 코미사’를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인터넷 장례사업 (Funerals.com)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미사를 찾아온 레니는 매우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설득하지만 코미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죠. 장례용품을 사야 장례식을 치를 수 있으니까 사업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하게 팔 수 있는 Funerals.com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의 사업이죠.’라는 요지로 설득해 봅니다. 하지만 코미사는 오직 한 가지만을 목표로 돌진하는 레니의 모습을 보면서 소중에서 그냥 이기려고만 했던 실리곤벨리의 젊은 변호사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리곤벨리의 벤처캐피탈리스트 (VC)들이 중요시하는 3가지 즉, 시장의 규모는 큰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었는가 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레니의 인터넷 장례사업 모델은 이들 VC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벤처기업을 부화시키는 역할에 치중하는 코미사는 VC들과 다른 기준으로 레니의 Funerals.com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을 버릴 수 있게 만드는 목적 같은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여기에 쏟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그 어떤 것’이 있는지를 레니에게 물어보지만 그는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코미사는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닌 창의력을 펼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통해



랜디 코미사 지음  
『승려와 수수께끼』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거나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레니에게 말해줍니다. 아직도 레니는 그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코미사가 던진 수수께끼를 풀만한 자신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죠.

레니의 사업에 대해 코미사는 결국 관심을 갖게 됩니다. ‘Funerals.com이 평생을 바쳐도 좋을만한 사업이 되려면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레니가 사업철학과 모델을 바꾸도록 유도하면서 말합니다. 또한 레니의 사업 파트너인 엘리슨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원래 꿈꿨던 사업 즉, 장례를 당해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려는 커뮤니티 사업모델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여건이 안 되니 먼저 해야 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코미사는 이런 마음가짐을 ‘미뤄진 인생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람된 일을 찾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욕과 열정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의욕은 앞으로 떠밀려 가는 걸 말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말합니다. 열정은 당신을 끌여당기는 겁니다. 본래의 자신과 맞아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유대감 같은 겁니다. 열정을 갖고 있어야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이 책은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시절 기업가정신을 강의할 때 사용하였던 교재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김정희  
음악학부 교수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 sw5030@hanmail.net



# ‘지슬’·‘비념’ 영화에다 문화예술축전 등 4·3 문화행사 풍성

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4월, 1948년 제주의 4월은 봄향기가 아닌 피내음이 감돌았다. 이후에도 제주 사람들은 4·3의 아픔을 입밖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이제 우리는 4·3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나이가 올 때는 좀 더 특별하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지슬’을 필두로 다큐멘터리 영화 ‘비념’, 문학콘서트, 재일제주인 사진전 등에 이르기까지, 4·3을 좀 더 문화예술적으로 풍성하게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4·3 관련 문화 콘텐츠를 살펴보면, 현재 제주의 주역인 우리들이 앞으로 4·3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

» 4·3 앞두고 6만 관객 돌파한 ‘지슬’

## 시적 영상의 감동적인 진혼곡

제주 4·3을 다룬 제주 출신 오명 감독의 영화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2’는 4·3 당시의 비극과 그 속에서도 순박함과 여유를 잃지 않았던 당시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흑백의 영상미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3월 1일 제주에서 먼저 개봉했으며 3월 21일 전국 개봉했다.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던 이 작품은 이어 지난 1월 26일 한국영화 최초로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최고작품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4·3 당시 가해국이었던 미국으로부터의 이 같은 수상은 제주4·3문화예술계의 괄목할 만한 성과다. 나아가 지난 3월 12일에는 프랑스 브졸아시아국제영화제에서 장편영화 경쟁부분 대상에 해당하는 황금수레바퀴상을 수상하기도 해 계속해서 작품성을 입증받고 있다.

극장가에서의 인기 또한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10일 만에 독립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5만 관객을 돌파한 데 그치지 않고 다음날 1일에는 6만 관객을 돌파했다.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영화 ‘지슬’은 관객들로 하여금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영상미”, “눈물 날 겨를조차 없는 감동” 등의 다양한 찬사를 받아내고 있다.

영화는 신유-신모-음복-소지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당시의 참상을 하나의 제의로 묘사해 마치 4·3 명령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진혼곡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담아내는 흑백의 영상미는 이러한 신묘하고 무속적인 분위기 형성에 일조한다.

영화 제목 ‘지슬’은 제주도 방언으로 ‘감자’를 뜻한다. 제주 사람들의 양식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끈인 지슬은 장면마다 끊이지 않고 등장해 따뜻하고 소박한 제주 사람들 그 자체를 상징한다. 적대관계인 군인에게도 서슴없이 내어주고, 어머니는 불타는 집 속에서 타지 않도록 지켜내며, 아들은 그것을 가져다 눈물을 머금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련의 장면들과 함께 지슬은 그 숭고한 가치를 더한다. 이렇듯 아픈 역사를 단지 아프게만 그리지 않고 초월적 시각으로 풀어낸 영화 지슬은 4·3 문화예술계에 길이 남을 작품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영화를 본 윤신혜(회계학과 2)씨는 “4·3의 아픈 역사를 이렇듯 아름답게 시작으로 표현해 낸 것이 놀라웠으며,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숙연해지는 기분이었다”며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는 소감을 전했다.

» 외지인의 시선으로 본 4·3 영화 ‘비념’

## 세상을 울릴 가장 아름다운 노래

또 하나의 4·3영화 ‘비념’은 4·3 당시 남편을 잃은 강상희 할머니의 개인사에서 출발한 다큐멘터리로, 4월 3일 제주에서 개봉한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의 토속적 재능을 강하게 지닌 오명 감독과 달리 ‘비념’의 임흥순 감독은 제주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서울 출신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비주얼 아티스트인 그는 2009년 제주도 여행 당시 동료였던 ‘비념’의 김민경 PD의 외할머니인 강상희(88)씨의 사연을 듣고서 4·3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 계기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바깥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제주도를 영화는 올레 코스를 따라 돌아다니며 답답하게 보여준다. 바깥 사람에게 관광지로만 인식돼 있는 제주도가 사실은 곳곳에 비극의 역사가 잔재하는 곳임을 보이는 것이다.

‘비념’은 제주 무속 세 가지 중 가장 간단하게 치러지는 굿으로 ‘비나리’라고도 한다. 끊임없이 기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간중간 죽은 원혼을 달래고 평화를 기원하고자 굿을 하는 장면이 삽입돼 있다.

영화 ‘비념’은 죽은 자의 시선을 통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강상희씨부터 시작해 곳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유령처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감독은 쓸쓸한 눈발, 바람 부는 풍경, 셋노란 굴뚝발, 곤충과 동물들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제주의 풍경을 담아내고자 한다. 개개인의 아픔에서 출발한 4·3의 역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끝나지 않고 6년째 해군기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정마을의 사태를 통해 현재화된다. 4·3 때 군인들의 발포 소리와 함께 죽어나가던 민중들의 모습 직후, 지금 현재 검은 연기와 함께 폭파되는 구럼비의 모습이 나와 앞 장면과 연결된다.

임흥순 감독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누구의 죽음 이든 하찮지 않은 것은 없으며, 생명과 자연을 경시하는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픔에 묻든 사회 안에서 제주 자연이 지닌 노란빛의 색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제주 그 자체를 영화를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를 본 강정마을 주민 민경씨는 “지슬과 비념을 다 봤다. 4·3을 다룬 영화들이 나온 자체에 감사한다”며 “‘비념’이라는 영화는 제주의 아픈 역사를 현재 시점의 제주와 연결시켜 잘 풀어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참신한 문화콘텐츠의 장, 4·3문화예술축전

## 4·3예술 20년, 역사를 기억하다

지난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열리는 4·3문화예술축전은 전년도보다 참신한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4·3 속에 가미해 아름다운 예술로써 4·3의 역사를 보듬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박경훈)의 4·3문화예술축전은 ‘저산 위에 아름다운 꽃그늘 아래 4·3예술 20년, 역사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내놓고 있다.

1일부터 10일까지 4·3평화공원 예술전시실에서 열리는 강정오 작가의 사진전 ‘60년만의 귀향, 2박 3일의 기록’은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향을 떠나서도 4·3의 기억 속에 악몽과도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재일제주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4·3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도쿄, 오사카, 교토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과 일본인 등 140여명이 60년만에 제주를 찾아와 보낸 2박 3일의 짧은 여정을 작가가는 밀착 취재해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2박3일 동안 4·3평화공원 방문, 4·3전야제, 4·3위령제 참석, 제주시 조전을 복촌리 방문, 4·3해원생생관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오는 4월 5일 제주도문화회관 소극장에서는 4·3과 함께 문인의 길을 걸어온 시인 김경훈의 ‘김경훈 4·3문학콘서트-병어리 사만이의 언어들’이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다. 오랫동안 제주4·3을 시와 마당극으로 형상화해 온 김경훈 작가의 이번 문학 콘서트는 말 그대로 시와 노래, 연기가 어우러지는 종합극적인 형식을 취한다. 작가의 작품을 노래로 만들어 노래패가 들려주기도 하고, 동료 배우들이 나와 아픈 상황을 연기로 상황 연기로 보여준다.

또한 ‘성산 일출봉에서’, ‘저기 어둠 속에’ 등의 작품은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연기로 보여주기도 한다. 작가의 입을 통해, 작품을 통해 그는 ‘병어리 사만이’의 말 못할 사연을 전한다. 병어리로 강요받으며 살아온 지난 인생과 현재의 여러 4·3담당들을 풀어낸다. 더 나아가 제주4·3문화예술의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어진다.

이밖에도 4·3문화예술축전을 대표하는 거리극 ‘기억과 동행하다’가 지난 2일 5시부터 제주시청 마당에서 열렸다. 이밖에도 4·3의 닛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4월부터 5월동안 선보여진다. 행사 문의는 제주민예총(064-758-0331)로 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강연초록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 변양균 박사

# 공정거래 해치는 재벌 개혁이 중요

변양균 한국경제학회 이사(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연이 지난달 2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자치와민주주의 시민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렸다. 다음은 강연 요약.

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각 세대가 성장해온 배경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세대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세대간 차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의 경우 그 차이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아예 생각의 바탕이 다르기까지 하다.

우리나라는 30년 사이에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났다. 1960년대 후반만 해도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3대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재벌개혁, 성장개혁, 노동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용어중에 자랑스럽게도 한국어가 있다. 바로 ‘재벌(chaebol)’이다. 독점적 시장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업종내의 기업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벌은 카르텔(cartel)과 같은 단어와 구별된다. 재벌개혁을 추구하면 사도 자금, 경영, 인사적인 면에서 일관된 체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large enterprise)과 복합기업(conglomerate)와 성격을 달리한다.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다른 것은 바로 혈족경영이다. 서구 언론들은 이러한 재벌을 ‘가족 경영 복합기업(family-run conglomerates)’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들, 딸, 부인 등 은 가족이 총동원되는 가족경영 자영업자 형태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능력과 노력이 뒷받침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미덕이다. 그런데 부를 불법, 편법으로 세습하는 집단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에서는 아무리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하게 소비해도 일반 국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장하는 중심에 재벌이 있다.

이러한 재벌문제의 개혁은 단순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개혁이란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지분을 통해 부는 물론 권력까지 승계하고 있는 족벌과 가족, 또 그 가족을 중심으로 결집된 일부 사회계층이 봉건군주처럼 세습되는 폐해를 막는 일이다.



변양균(한국경제학회) 이사

지난 대선부터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로서 대기업의 폐해를 논하고 있다. 경쟁적 시장 질서를 형성토록 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의 폐해와 재벌의 폐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혼돈이다.

재벌의 폐해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헌법 제11조 2항의 ‘특수계급 인정, 창설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재벌의 문제점은 부와 권력이 불법·편법으로 세습된다는 데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법 강화,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재벌개혁은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 외에도 성장개혁이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성장과 일자리를 수반하지 않는 성장은 이제 곤란하다. 이제는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제 경제 운용의 목표를 빈곤성장에서 복지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은 결코 성장이 아니다. 성장은 필요조건일지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성장을 위해 경쟁은 필요하다. 다만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시장소독의 격차도 인정해야 한다. 가치분 소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 노동개혁이다. 정부는 노동력을 단기간에 소모하도록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생애 총 노동시간이 길어지도록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할 때이다. 국민들의 생애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때 노동의 유연성은 높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이란 고용주의 권한이 아니라 노동자가 기업주에게 목을 매지 않도록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정리=김병지 기자

##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 1. 창업사업화지원 ‘창업 아이템’ 모집

- ▶최대 5천만원 한도(총사업비의 70% 이내)내에서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준비 지원
- ▶지원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대표자
- \*기업의 대표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 ▶신청기간: 4월 17일까지
- ▶신청방법: 창업넷 온라인 접수 (<http://startbiz.changupnet.go.kr>)
- ▶문의: 창업지원단(754-2066)

### 2. 2013학년도 2학기 필리핀 자매 교류수학

- ▶지원자격: 학점 2.7점 이상
- 과전 종료후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할 잔여학기가 있는 학부 재학생
- 같은 프로그램으로 과전된 경력이 없는 자
- 토의 500점 이상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소지자
- 가기 전, 후 영어성적 제출
- ▶모집기간: 5. 6월 공고
- ▶문의: 국제교류본부(754-2197)

### 3. 일본 인턴십 설명회 개최 및 연수생 모집

- ▶일시: 4월 9일 오후 4시~6시
- ▶장소: 취업전략본부 취업전용강의실
- ▶내용: 유급/무급 인턴십 설명, 비자발급 안내, 개인 상담, 신청서 접수 등
- ▶신청방법: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신청
- ▶기사사항: 참여학생 공표처리
- ▶문의: 취업전략본부(754-2034)



## 제주어 낱말맞추기

제주어 공부도 하고, 2만원 상품권도 받아!

1)		2)		8)	9)	
		3)				
4)				10)		
					11)	12)
	5)					
6)			7)			

소속·직위(학과·학년) :

이름:                      연락처:

제주대신문

## 가 로 열 쇠

- 1) 제주4·3사건 즈음에 때는 꽃나무 이름이다. 이것의 꽃은 잘 때 동쪽으로 뚝 떨어져서 4·3 때 억울하게 죽은 영령들을 비추어기도 하는데 이 나무의 제주어 이름은 ‘○○○’이다.
- 3) ‘부께’를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자어 이름을 따서 ‘선께’ 또는 ‘빤산’이라고도 한다.
- 4) 겨울철 물을 뿜 솟음을 굿이모을 때 쓰는 도구다. 표준어 ‘괭글’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6) ‘뽕을 전한 사람과 원래 이야기한 사람을 대면시켜서 그 뽕들을 서로 하고 안 했음을 태어보는 일’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 8) ‘술 듯한 뽕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료’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술○○’라고 한다.
- 10) 제주에서는 예전에 이것으로 찻갈을 많이 담가 먹었다. 이것을 이용한 조리법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는데, 예전부터 제주식 북촌리, 대정읍 지역, 서귀포시 북쪽동에서 이것이 많이 잡힌다. 이것으로 만든 물회는 제주 지역의 여름철 별미 가운데 하나다.
- 11) ‘뽕에 한군데 여럿이 종종이 모여서 뽕씩이는 뽕’을 열커피는 제주어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이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 시작을 짐작했다고 한다.

## 세 로 열 쇠

- 2) 표준어 ‘양푼’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4) 예전에, 한문을 사서로이 가르치던 곳을 말한다. 표준어 ‘글방’ 또는 ‘서당’에 해당하는 곳이다.
- 5) ‘문의 엄근’라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이곳에 서면 ‘○○에 사지 말라’고 한다. ‘뽕의 엄근’은 ‘뽕○○’라고 한다.
- 6) 표준어 ‘솜’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이것을 넣어서 만든 옷을 ‘○○옷’이라 하고, 이것을 넣어 만든 이불은 ‘○○이불’이라고 한다.
- 7) ‘서로 동등한 예를 갖추어 하는 잘’로, 대개 결혼식장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
- 9) ‘굵이 몰아서 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말리기 위해 널여놓은 곡식에 새가 날아들면 “저 새야 ○○○.”처럼 말한다.
- 12) 표준어 ‘떠루’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886호 정답>

1) 새	2) 각	시		3) 다	랑	쉬
왓(밭)		리		리		
	4) 곤	떡		5) 뽕	6) 할	망
6) 작	지		7) 객(객)		망	
	곤		주		9) 당	뽕(밭)
	11) 지	11) 다	리			
		간				

출제 :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어센터



취업을 **Job**아라  
⑧ 유망 중소기업 탐방 / (주)아트피큐

# 꼬마해녀 ‘몽니’ 개발... 제주를 대표하는 IT·CT회사로 성장

캐릭터 사업 등 문화콘텐츠 분야로 영역 확장

2012년 ‘행복옴뎀’ 업체에 선정... 복리후생 다양

CGV 제주가 위치한 메카플러스 건물 3층에는 ‘키즈카페 몽니’가 들어서 있다. ‘키즈카페 몽니’는 ‘몽니’라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나 게임기 등을 마련해 놓은 장소다. ‘몽니’는 제주 해녀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이다. 이 캐릭터는 현재 SBS ‘아이엠몽니’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주)아트피큐(대표 이사 오태현)가 ‘몽니’ 캐릭터를 만들었으며, ‘키즈카페 몽니’도 운영한다.

(주)아트피큐는 2000년 3월 16일 설립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원래 홈페이지 개발, 응용소프트웨어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였다. 하지만 2005년 차별화된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제주문화 기반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게임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캐릭터 및 문화예술 상품 등에 뛰어들었다. 현재 만화 캐릭터 ‘몽니’를 제작, 문화콘텐츠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홈페이지 개발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나뉜다.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관리를 표준화 및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업무관리시스템은 업무를 지시하고 진행 사항 및 제반 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정보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한라도서관,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지식산업진흥원, JDC지정면세점 등의 사이트에 (주)아트피큐의 기술이 적용돼 있다.

제주문화 기반 콘텐츠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행했다. 2005년 당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각 지역마다 다른 기념품이 존재했다. 이에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몽니’라는 해녀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해녀는 제주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캐릭터로 만든 이유는 인형, 애니메이션, 문구류 등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재는 홍콩, 영국,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몽니’를 토대로 한 웹 게임도 만들었다. ‘몽니’ 캐릭터 외에도 ‘섬집아이 소중이’라는 캐릭터도 만들었다.

(주)아트피큐는 정보화경영체제, 성장유망 중소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인증 받았다. 더불어 수출유망 중소기업, 스타기업 지원 사업,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등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제주대와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상품등록 11건, 의장등록 3건, 디자인등록 5건이 등록돼 있다.

앞으로는 캐릭터 사업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웹 사업 분야는 제주도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캐릭터 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인지도만 높아지면 캐



(주)아트피큐는 웹사이트 구축 및 캐릭터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스마트빌딩내 사무실 입구에는 ‘몽니’ 인형, 배게, 피규어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릭터와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캐릭터의 인지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나라, 기업들과 라이선스를 맺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애니메이션을 통해 캐릭터를 알리고 세계화 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영문권 나라에 캐릭터를 수출하기 위해 전시회도 열었다. 제주도,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 ‘몽니’ 캐릭터를 알리고 있다.

(주)아트피큐는 복리후생이 높은 회사다. 사원들의 능력이 오를 수 있다면 어떠한 복지를 펼칠 수 있다는 회사 철학을 갖고 있다. 다만 100%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100% 지원하면 공짜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50%만 지원해주고 있다.

회사는 장기근속자포상, 우수사원포상, 명절 선물, 창립일 선물, 육아휴직, 휴게실, 수면실, 주택구입시 자금, 차량 유류비, 본인

학자금, 결혼준비, 직무능력향상교육,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또 자기개발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다. 5년을 단위로 해외 연수의 기회를 준다. 이외에도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등도 운영 및 지원한다. 다양한 복리후생으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행복옴뎀’(복지 수준이 높은 회사)으로 선정했다.

(주)아트피큐는 직원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 복지에 힘쓰는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사원들이 쾌활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문화를 인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미래의 새로운 문화정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또 급변하는 인터넷 문화에서 최고의 정보화 기술 구현과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데 끝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의-(064)757-7966

김동현 기자

## 캐릭터상품 사업전망 밝아 개인성장 위해 자기계발 필요

인터뷰 아트피큐 오태현 대표



▶채용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  
“오래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일을 하다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사에 큰 손해로 다가온다. 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본다. 또 다양한 활동 경험보다 한 우물을 판 것을 더 높게 본다.  
이와 함께 노력을 많이 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맡은 업무를 최고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자신의 결과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개발 분야의 인재가 구하기가 힘들다. 회사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개발 분야의 직원이 꼭 필요한데 현재 개발팀의 인력이 많지 않다. 이는 관련 학과 의 학생이 개발 공부보다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발 능력이 있는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캐릭터 사업의 성공을 예상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이후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2005년 캐릭터페어전시회에 갔다가 제주만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면 되겠다는 가능성을 안고 시작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 좋은 낙이 온 것 같다.”  
▶복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사원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를 즐겁고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에게 일을 강요하

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원들이 노력한만큼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어건이 되는 만큼 사원들에게 복지를 베풀고 있다. 비록 임금은 타 업종에 비해서 많을 수 없지만 복지만큼이라도 제대로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밤을 새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만약 하기 싫은 일을 한다면 일을 시키는 회사도 손해고 본인도 손해다. 열정과 애착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대우나 조건을 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된다.

또 자기계발을 꾸준히 해야 한다.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20~30%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안경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발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자신의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  
끝으로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다양한 곳에서 일했지만 오래만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선택을 신중히 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김동현 기자



## 실패에서 성공의 그림자 배워라

뽀로로 성공 스토리

최 종 일 / 아이코닉스 대표

신원방송학과 졸업 후 광고기획 회사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인젠가부터 내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대중들의 최종 평가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다. 1995년부터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지만, 성공작인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년에 나왔다. 8년간 단 한 편도 성공하지 못했다. 1997년 처음 제작한 ‘녹색전차 해모수’는 제작비의 30%, ‘레스토 특수구조대’도 60%의 적자를 냈고, 애니메이션 회사 창립 후 만든 ‘수호요정 미של’도 일본 작품인 ‘포켓몬스터’와 맞붙어 참패했다.

한국애니메이션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지금의 아이코닉스를 만들었다.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굳건한 각오로 신나게 일을 했지만 회사 설립 후 처음 몇 년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서정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완성도를 높인, 반드시 ‘될 것’만 같았던 작품에도 아이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꾸준히 실패 요인들을 학습하고 분석해나갔다. 그리고 곧, 그동안 애니메이션을 보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해왔음을 깨달았다.

이후 아동용 애니메이션과 유아용 애니메이션 시장을 비교한 후 비교적 경쟁자가 적은 유아용 애니메이션 시장을 선택해 기획했다. 유아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만큼 그 포대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골라야 했다. 토끼, 강아지, 고양이 등은 이미 유명한 캐릭터

가 너무 많았다. 이왕이면 애니메이션에서 다뤄지지 않은 동물을 찾아보니 팬더이었다. 하루일과가 끝나면 사무실에 남아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  
아름답게 얻은 아이디어가 ‘뽀로로’다. ‘아이들이 즐겨워하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해답을 얻었다. 교훈을 전달하는 데 치중해 재미를 소홀히 했던 기존의 유아용 애니메이션과의 차별화를 피하기로 했다. 분명 교육적인 부분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재미와 공감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녹여내기로 했다. 아이들도 보편적인 정서를 갖고 있고 주제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인 만큼 무조건 가르치는 것보다 ‘이야기’를 전하는 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았다.

뽀로로의 성공비결은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EBS를 통해 첫 방송이 나간 이후 아이들은 금세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버렸다. 주요 시청층인 유아들의 집중력을 고려해 5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가 이어지게 만든 것도 유효했다.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 내 친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캐릭터의 성격을 설정하고 에피소드에 일상생활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했다. 따라서 주인공 ‘뽀로로’뿐 아니라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구체적인 성격이 부여됐다.

2003년 텔레비전 방영 이후 뽀로로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애니메이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이 들어오지 않았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 애니메이션 특성상 방송만으로 제작비를 회수하기는 어렵고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궁리 끝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책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를 두드렸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결국 거의 이윤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출판사를 설립한 끝에 한 출판사를 거쳐 유통에 나섰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 왔다. 2주 초판 매진, 2쇄 2주 만에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노하우가 됐다”

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라이선스 계약들이 이어졌다. 현재 1600여개 캐릭터 상품으로 뽀로로가 판매되고 있다.

무의미한 실패는 없다  
수많은 실패 경험이 지금의 뽀로로를 있게 했다.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그것이 노하우가 됐다. 실패가 쌓이다보니 점점 실패의 가능성이 줄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쉽게도 도전을 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나가다보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성공의 그림자, 지름길을 배워야 한다.

청년 기업가 정신

김 현 진 / 레인디 대표

처음 창업을 한 것은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였다. 중학교를 마치고 호주에서 유학을 했는데, 학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영어도 익숙지 않아 썩 임금이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영어를 익히려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전학을 도와주다가 소개료를 받았다. 이것이 사업의 시작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 교육컨설팅을 시작하여 한국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유학생을 상대로 전학이나 대학조기입학 수속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했다. 유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니 사업이 잘 됐다. 1년 만에 회원이 500여명에 이르렀고, 4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즐거운 직장은 일이 신난다  
큰 포부를 안고 8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했다. 창업을 준비하는데,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당시 유명한 IT기업 사장들에게 자필로 투자를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 넥슨의 김정주 사장이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흔쾌히 받아들였다. 넥슨 직원들의 학력은 대만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연봉은 적었지만 직원들은 밤샘근무를 자원해서 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직원들의 얼굴도 항상 밝았다. 넥슨은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의 온라인게임을 히트시키며 지금은 시가 총액 8조의 회사가 됐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발달한 일터만 들기에 한창이다. 직장이 즐거운 곳으로 바뀌어야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비전을 만들

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꿈꾸며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했다. 넥슨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10명과 모바일 게임회사를 설립했다. 2년이 지나니 직원은 40명으로 늘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전국에 15개 회사가 경쟁자였지만 2년 후에는 2800개나 됐다. 시장의 트렌드는 바뀌고 있었는데 우리는 공장처럼 게임만 찍어내다가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

창업의 성공, 기업가 정신 필요해  
빠져린 실패의 교훈을 안고 다시 창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번엔 대학생들과 창업을 준비했다. 비슷한 포대에서 창업 동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모두들 스스로가 ‘나이가 많다.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창업에 꿈을 갖고 있던 대학생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를 하나씩 모았다. 3년은 월급을 못 준다. 그래도 함께 하겠다고 했더니 대부분 승낙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2008년 현재의 레인디를 차렸다. 길거리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인 플레이 스트리트라는 서비스로 뉴질랜드, 호주에 진출했고 2010년에는 싸이더스HQ와 함께 위시쿠몬이라는 소셜커머스 서비스도 시작했다. 플레이 스트리트는 3년 차 25억 규모의 수익으로 돌아왔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몇 억 정도 빌릴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대부분 침묵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여자 친구 말을 잘대로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 다들 고민한다. 그런데 리더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거나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연을 끊을 정도의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 기업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가 그런 결로 방해받으면 안 된다.

창업한 후 1년간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힘든 환경인데도 창업 붐에 편승해서 CEO라는 단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가차 없이 그 꿈을 접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굳성 있고 명확한 비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다른 벤처 기업의 합류를 권유하기도 하고, 자신



“넥스 직원들은 적은 연봉에도

밤샘근무를 자원해서 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직원들의 얼굴도 항상 밝았다”

의 역량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준다. 레인디에서 육성 중인 인큐베이터 기업의 몇몇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위험 무릅쓴 도전 그렇게 자기 길을 찾았다.

기업의 본질은 고용 창출과 매출 상승이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장사치가 되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내세운 첫 번째 철학은 ‘대학생들을 버리지 않는다’였다. 대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과감히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구글, 야후,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모두가 대학생들이 창업했다. 열정적인 사람들과 무언가를 이뤄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꿈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업가이다.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자녀들이 미래에 창업하겠다고 할 때 ‘아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창업하기 힘들어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 수준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교수시론

아싸라비아(Assarabia)!? 아싸비야(Assabiya)!!



김 부 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싸라비아’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의미 없어…

‘아싸비야’로 바꾼다면 싸이가

아라비아인들로부터 감사와 칭송의

대상으로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

14세기 아라비아의 역사가인 이븐 할둔(Ibn khaldun)은 1375년부터 1379년까지 『성찰의 책』(Kitab al-Ibar)으로 약칭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를 집필하였다. 그 제1부는 문명과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으며, 『성찰의 책』 전체의 ‘서문’과 ‘서론’ 그리고 제1부를 합쳐서 『무캇디마』(Muqaddimah) 또는 『서설』(Prolegomena)이라고 부른다.

20세기의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역사의 연구』(Study of History)에서 이 책에 대하여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만든 역사 철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무캇디마』에서 이븐 할둔은 인간 사회의 흐름에도 자연법칙과 비슷하게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몰락에는 그 사회구성원들을 공동의 목표 아래 결집시킬 수 있는 ‘집단의식’ (group feeling or consciousness) 또는 ‘연대감’ (solidarity)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식’ 또는 ‘연대감’을 아라비아어 발음으로 ‘아싸비야’라고 하며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asabiyyah’ 또는 ‘assabiya’가 된다.

이븐 할둔에 따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 문

명은 고양된 ‘아싸비야’를 바탕으로 융성하고 발전하지만 ‘아싸비야’가 해이해지면 쇠퇴기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그의 역사관은 시대적·공간적 배경으로 중세까지의 아랍 문명권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한 때 유라시아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역사는 물론 20세기 싱가포르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보편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여 년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관련 학자들이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인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가 ‘군주론’(Il principe)에서 지도자의 성공과 관련하여 ‘포르투나’(fortuna), ‘비르투’(virtu) 그리고 ‘네체시타’(necessita) 등 세 가지 요소를 거론한 것을 언급하면서, 싱가포르의 자연적인 조건이나 운수(運數)와 연결되는 ‘포르투나’의 요소가 매우 열약했지만 지도자(李光耀수상)가 탁월한 시대 정신(‘네체시타’ )과 역량(‘비르투’)을 통해서 싱가포르인들의 ‘아싸비야’를 획기적으로 고양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연세부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집단의 결속이 필요한 경우, 또는 뜻한 바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을 때 ‘아싸비야,’ ‘아싸비아’(assarabia)’ 또는 ‘아싸라비아(assarabia)’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 ‘흥’이나 ‘신바람’ 때문에 외치는 이러한 소리가 이븐 할둔이 『무캇디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싸비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필자는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가수 싸이(Psy)가 공전의 세계적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의 후속곡 제목으로 ‘아싸라비아’를 채택하자, 이 단어가 ‘ass’와 ‘arabia’(Arabia)가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라비아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나 비하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지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말 ‘아싸라비아’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아싸라비아’의 영어 표기인 ‘assarabia’가 만에 하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 이를 흔히 함께 사용하는 ‘assabiya’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노래는 아라비아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위대한 역사서인 『무캇디마』의 핵심어인 ‘아싸비야’를 한국인 가수 싸이가 대신 홍보해 주는 셈이 될 것이며, 아라비아인들로부터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칭송의 대상으로 반전(反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들하르방

제주의 역사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무관심을 깨자



김 명 지 편집국장

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생기구 간부들이 지난달 29일 4·3 65주년을 앞두고 유적지 순례 행사를 진행했다. 전·현직 학생자치기구는 ‘제주지역 사회의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풀어야 할 지역사회문제’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학생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인들이 4·3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대학사회가 갈수록 4·3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무관심해지고 있어 대학과 지역사회가 분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일부 대학인들도 동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자 제주대신문 독자기고에서 한

학생들은 “4·3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4·3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해 혹자들은 “개인주의, 취업문제 등으로 우리나라 대학사회가 탈(脫)정치화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단순한 피교육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해야할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가 4·3 추념행사를 좀 더 활동적으로 해줄길 기대해본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매년마다 학생회가 4·3 유적지 탐방 등을 기획하고 있지만 행사가 진부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회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선한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4·3을 기억하는 행사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 1952년에 문을 연 우리대학은 정부에

의한 4·3 탄압기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에 학생들이 4·3 진상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4·3유가족들의 집회 등의 활동과 함께했다고 한다. 또 1991년에는 학생회가 ‘4·3자주항쟁 계승과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아라 켈기대회’ 등을 열었다. 이 때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는 제주사회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명예회복 운동에 많은 활력소가 됐다는 평가이다.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4·3에 대해 공식사과를 한바탕에, 예전처럼 4·3 관련 시위를 하라는 것이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공식사과는 있었지만 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지역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은 많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에 남아있는 4·3에 대한 그릇된 인식 바로잡기이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살해한 명백한 국가살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엔 아직도 4·3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남아있다. 일부

에서는 아직도 4·3을 두고 ‘레닌 기념일’, ‘좌익운동들의 폭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4·3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다.

이제 제주대 학생사회도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나가는 데 한몫을 해야 한다. 캠퍼스 내에서 4·3주간 행사를 등을 대대적으로 열어 대학생들은 물론 중·고등 학생,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 대학은 제주의 유일한 거점국립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제주대 학생자치기구의 임무는 학생들의 복지증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주대 학생사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변혁의 목소리는 사실 대학에서 나왔다. 더 나아가 4·3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논란, 제주도 환경문제 등에 제주의 지성인 집단으로서 더욱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본다.

독자기고

북한 핵위협과 우리의 자세



현 규 리  
정치외교학과 2

감행했다. 핵실험과 동시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 수위 높은 도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남북한은 한민족이라 부르기에에도 민망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째서 자국민의 굶주림도 외면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핵에 집착하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비정상적인 체제를 가진, 자신들만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핵 개발에 따른 위협, 그에 따른 타 국가들의 긴장고조 효과는 이미 입증돼 있다.

핵 이외에 별다른 위협수단을 지니지 못한 북한은 더욱 더 핵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잃은 것이 많아진 우리나라는 너 죽고 나 죽자 같은 식의 도발에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점점 핵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북한의 핵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겐 잃을 것이 너무 많다

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에도 안심할 수 없다. 일단 북한이 핵을 쏘게 되면 요격은 요원한 일이고 서울에 떨어지는 순간 6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상을 다시는 되찾지 못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전락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겹갈하면 전쟁위험을 하는 북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온건대책은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일시적인 평화밖에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쟁에 대한 위험이 뒤따르겠으나, 일시적인 도발이 두려워 계속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이뤄준다면 거짓된, 일시적인 평화만이 지속되고 잠재된 근본적인 위험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것이다. 필자처럼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온건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은 언제나 가까이 에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주대학교에 있는 북한 및 통일론 강좌와 같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강좌들의 증설과 동시에 토론회를 열어 중지를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책임감·배려하는 태도 배워

한 석 희 / 생활환경복지학부 1

고등학생때에는 대학생이 되면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순간에 돌아켜보니 전보다는 자유롭지만 내 스스로의 책임감에 더욱 더 부담이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와 달라진 점을 찾자면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걸 느꼈다.

조별 활동 수업을 하면서 각자의 조별과제가 있는 이유가 협동과 배려해야 결과가 좋다는 걸 느꼈다. 나하나 편하자고 그 수업에 빠져버리면 같은 조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선불리 수업을 빠질 수도 없다. 이를 통해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또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나는 엠티를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여러번 보도됐지만, 술을 너무 마셔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엠티는 단지 술만 계속 먹이는 것인줄 알았다. 하지만 건전하게 조별로 게임도 재밌게 하고 술자리에서 선배들이 술 못 마시는 애들을 배려해주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자비하게 마시게 할 줄 알았는데 미리 전에 못마시는 애들은 미리 말하고 배려해주는 것은 고맙게 느껴졌다. 엠티는 선배와 동기를 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속한 학과만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과 선배들은 정말 하나부터 열가지 다 친절하고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 기대되는 점은 내가 수업을 들어가면서 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길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 나로써는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물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하고 미리 사회에 적응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생활환경복지학과라는 곳을 온 이유는 내가 우리 학과에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성격으로 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내 진로를 위해서 온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주거복지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우리 학과에 온 것이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스스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걱정도 된다. 하지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배들과 같이 지내면서 고등학교때 보다 훨씬 재밌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말 어른이 돼서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동문칼럼

철저한 준비만이 한계 넘을 수 있어



강 문 중  
국어국문학과 93학번  
한국학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세상에 나가기 위해 오리가 되려 하지 말자! 모 방송에서 김난도 교수가 한 이야기다. 세상은 스펙 쌓기라는 이름으로 청춘을 오리로 키운다. 오리는 육지에서 뿔뿔뿔뿔 걸으며 뿔 줄도 알고, 수영과 잠수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퍼덕거릴 줄도 안다. 육·해·공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완벽한 스펙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세분화된 분야에서 전문가를 원한다. 함께라 날아올라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를 찾고 싶은데, 오리가 와서 “저는 날 수도 있고, 독수리가 하지 못하는 수영과 잠수는 물론 달리기 도 할 줄 알아요!”라고 아무리 펙펙거려봐야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자! 인간의 능력과 기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서로 달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말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가능하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때문에 피에르 부르디외가 지적했듯이 계급에 따라 문화자본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공허한 담론에서 벗어나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안철수 등, 우리는 매체에 부각되는 각 분야의 최고를 롤모델로 정한 후 나도 최선을 다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고가 아닌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며, 그 존재 가치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미를 켜어내린다. 이러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향했을 때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피곤한 일이다. 주변의 담론이나 사회가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치 주체적 자아의 선택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모두 최고가 될 수 있다면 ‘최고’라는 단어는 불필요하다. 각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름의 성과를 얻어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찾았을 때 그 결과물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다. 아스팔트에 돌아난 잡초조차도 그 자리에서 자라야만 하는 이유와 의미가 있듯이…

한 방에 나를 성장시키자! 인생의 로또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한 후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자본의 한계를 단기간에 넘으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A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잘 할 수 있으므로 서양화가가 꿈이다. 그런데 주변에 A에게 도움을 줄 화가는 없고, 유명한 학원을 다니거나 전담가의 레슨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모양과 색을 재구성할 수는 있으나 화가가 가진 개성과 미감을 얻는 것은 정말 힘들다.

A는 준비가 필요하다. 『서양미술사』를 구입하여 정독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고, 주변 사람에게 최대한의 대출 받고, 신문사나 잡지사에 스폰서를 신청한다. 그리고 떠나자! 프랑스 파리 중심가 1구역 루브르 박물관으로! 머물 수 있을 만큼 머물면서 매일 박물관에 들어가 느끼고, 감상하고, 기록하고……! 회화에 대한 돈오(頓悟)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잘나 척 해 봤다. 구라를 더 치고도 싶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글자가 이미 지면을 덮었다. 다음을 기약하자. 경제력이 부족해서 슬프고, 꿈과 희망이 안개 속이어서 더 슬프고, 함께 가보자 하는 사람 없어 더더욱 슬프고, 삶의 지표로서의 시대정신이 없어 더욱 더 슬프다! 그러나 각 자는 평화로운 잠을 반드시 깨우고야 마는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더욱 더 바란다.

시사키워드

▶출구전략(exit strategy)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본래 군사 분야에서 주로 쓰이던 용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인력이나 장비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 국방부 실무 차원에서 ‘출구전략’이란 용어를 썼던 데서 비롯됐다. 이후 출구전략은 주로 경제학 용어로 바뀌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각종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통칭하며 제법 낯익은 용어가 됐다. 요즘 들어선 정치권에서도 출구전략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대선 공약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대선공약 출구전략 시사’라는 타이틀이 신문 지면에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 무조건 강행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현실론’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적자재정의 악조건에 처해 있고 당초 가정한 재원 마련 대책도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한 달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대선공약에 대해 출구 전략을 시사하는 것은 이원감이 없지 않다. 당선 이후의 공약경시 현상은 ‘당선 뒤고 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운동의 풍토가 아직도 유행한다는 증거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들이 현실편처럼 버려지는 현실은 결국 국민들의 정치 냉소와 불신만을 떨어뜨릴 뿐이다.

▶아웃도어(Outdoor+Metro) 록 열풍

산행용의 등산복이 도심 속 일상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웃도어 록(Outro Look)’은 등산복위주의 아웃도어(Outdoor) 록과 도시 일상복인 메트로(Metro) 록의 합성어이다. 아웃도어 록은 등산 때는 물론 일상생활의 외출복이나 사무복으로 입을 수 있는 등산복패션을 뜻한다. 아웃도어 록의 열기를 타고 등산용품 전문업체와 일반패션업체도 자체등산복 브랜드와 해외 명품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등산복시장이 너무나 다양해졌다. 아웃도어 제품이 ‘불황 속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530억원으로, 2009년 2조원에서 2010년 2조6000억원, 2011년 3조6000억원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세가 큰 만큼 신규 브랜드도 쏟아진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아웃도어 브랜드만 1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아웃도어 제품은 항상 고가(高價) 논란을 불러왔다.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들 만큼 비싸 ‘등골 브레이크’로 불린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아웃도어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는 크게 아웃도어 생산업체가 원가에 비해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와 원단으로 쓰인 고이텍스 등 고가 원단 자체가 아웃도어 업체에 비싸게 공급됐는지 여부다. 조사 결과가 사뭇 궁금해진다.



